



이재석 회장

당면한 임업문제점과 그 대책

이재석 / 한국양묘협회장

오늘 임업의 대가이신 독립가 여러분을 모시고 당면한 임업문제점과 그 대책이란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신 독립가협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임업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과 같이 임업현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운명의 배를 탄 사람으로서 임업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종합하여 당면한 이 어려운 임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만 되겠다고 하는 소박한 몇가지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임업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나라 임업의 주인인 산주가 임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있다고 봅니다. 전 산림의 70%가 넘는 민유림야 2백만 산주가 융자금이나 보조율을 아무리 높여도 산림을 경영하려는 의욕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생산요소인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어도 이른바 생산 삼요소가 다 갖추어 있다하더라도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의욕을 잃으면 생산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 행정의 요체는 생산자들이 기업의욕을 가지고 생산을 함으로서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취업율을 높여야 하는 반면에 성장의 과실을 유효적절하게 분배하는 기술이 곧 정치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잘 조화(調和)하느냐에 따라 정치행정을 잘하고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 정치나 행정이 성장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분배가 울고, 분배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성장이 울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정부수립 50년이 넘도록 임업정책에 있어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임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정책을 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비단 이 임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이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우리 임업도 산업화를 위하여서는 기초(基調)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임업에 있어 기초(基調)의 전환이란 임업경영 단위가 규모(規模)화 되어야 하고 기계화, 전문(專門)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임업정책은 여기에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임업의 주인인 산주중심으로 임업정책을 펴오지 못했습니다. 그 실례로 대부분의 조림이 조림명령을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락 산림계(山林契)에 대집행하도록 조림을 하여 그 분수(分收)율을 산주(山主) 대 산림계(山林契)가 1대 9로 되어 산주는 산주대로 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부락산림계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도시로 진출하여 조림 당시 조림용역을 맡은 사람의 대부분이 조림 산물을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산림계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경과조치로서 엄연히 살아있어 산주는 산주대로 육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산림계는 산림계대로 산에 관심이 없어 이른바 우리산림은 산주는 있으나 무주(無主)공산상태가 되어 지금까지도 우리 산림의 상당부분이 소유와 경영의 불확실한 시대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공원, 보안림, 군사보호시설 지구 등의 상당한 산림이 법정 제한림으로 묶여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며 산불이나 병충해에 대한 위험

성이 높아 산림투자의 안전성 때문에 대부분 산주나 산림경영자가 임업투자의 구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산림법에 의한 임야매매허가 제한등은 임업구조조정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동안 민간부문의 산림투자는 대기업에서 상당부분 해왔으나 기업이 소유한 산림을 기업의 비업무용 재산이라하여 매각을 강요당하고 금융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서 임업부문의 민간유치에 찬물을 끼어부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임업의 기초전환을 위한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업의 민주(民主)화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산림부분을 대표하는 계획사업은 수차례에 걸친 산림자원화계획입니다. 제 1,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말을 바꾸면 이는 조림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이 기간에 조림은 주로 속성수인 이태리포푸라 및 은수원사시나무 조림이었습니다. 산주에게 물어보고 한 것도 아니고 관 주도형 조림이었습니다.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보면 88년도에 포푸라류 목재를 1년에 100만m³를 벌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실제 단 1만m³를 벌채 공급할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이태리포푸라는 무서운 녹병과 낙엽병 때문에 조림실패를 했고 은수원사시는 산주들이 기피하여 조림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임업의 민주화 문제는 산림조합에 관한 법률이 산림법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던 조문을 산림법과 따로 독립을하여 산림조합법으로 발전을 하고 더 나아가 임업협동조합법으로 새로이 제정된 것은 제도상으로 임업이 민주화를 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도 임업기조의 전환이 되지 않은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형편입니다. 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지만 산주들이 임업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조합일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협동조합에게 주어진 모든 국가적 혜택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협동조합이란 영세한 자본들이 모여서 큰자본에게 대항하자는 것이 기본원리인데 우리는 이 기본원리를 활용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우리 임업은 모든 산업이 근대화의 붐을 타고 기조의 전환과 민주화를 통해 자본제(資本制) 임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1978년부터 아무대책 없는 목재수입 자유화 조치가 나오면서 우리 임업은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당면한 우리 임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경제학자의 말을 빌리면 한국의 농림업에는 답이 없다고했습니다. 1농가당 경작면적이 1정보내외로서 농산물가격이 국제시세보다는 적게는 2배, 크게는 10배가 더 비싼 생산비를 들여 국제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업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산림의 평균 소유규모 2.4ha 가지고는 구조적으로 임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차선의 방법을 강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임지의 유동화(流動化)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임지의 유동화란 내가 조림한 산이 언제라도 산림시장에 내 놓으면 적정가격에 팔리고 사져서 환금화(換金化)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유든 간에 한 번 내 소유가 된 산은 처분할 시장이 없어 대를 이어가며 소유해야 하는 상황하에서는 산림에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림거래소를 설치할 법 및 제도적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산림거래소 설치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임업협동조합에 부설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산림거래소에는 전국의 산림을 필지별로 임황, 지황, 지이(地利) 등급 등 산림전반에 대한 상황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우선 산림을 감정하고 언제든지 산주가 이 산림거래소에서 적정가격에 산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오늘의 시장경제 원리는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산을 사고 팔고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후자는 산림거래소에서 산을 사고 팔고 한다면 산림의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않

습니다. 우리는 증권거래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가 인정한 도박장 같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 증권시장은 증권을 팔고 삼으로써 거기에 돈이 몰림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기업들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 산림거래소 역시 임업의 장기투자로 인한 문제점을 유동성선호(流動性選好)로 해결함으로써 임업의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림거래소를 통하여 임지의 유동화정책을 강구하자면 여러가지 법의 개정은 물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지금 10년이상 소유한 임지를 팔려고 할때는 양도세를 감면해야 합니다. 농지를 8년이상 자경했을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특별부과세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리고 산림법이든 국토이용관리법이든간에 매매증명, 또는 매매허가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또 임지를 단지로 사서 임업경영을 규모화 하려고 하는 산림경영자에게는 임지 구입자금을 저리로서 융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법정제한림은 국유림과 교환해 주거나 그렇게 못하면 국가가 매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업을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국영산림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민바탕 위에 산림거래가 활발하게 될때 다시 말씀드려 산림이 시장

성이 확보될때 임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임업에는 직접 생산정책 보다는 산림 시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임업 기술개발로 생산비를 줄이고 우리가 국제임업과 경쟁하는 일입니다. 임업기술은 대학이나 연구원등에서 연구되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학이 임업기술을 개발하거나 산업역군을 배출할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입학연구나 교육이 학문을 위한 학문의 교육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아카데미한 교육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각주마다 산업역군을 생산 배출하여 산업계와 연결하기 위하여 주립대학을 설립하고 여기서 임업현장과 직결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이 발전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속히 대학교육이 산업현장과 부합되는 교육이 됨으로서 임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업에 대한 시험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임업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나라들을 가보아도 임업인이나 임업회사들이 연구테마의 용역을 주어서 시험장이나 연구소가 연구를 하게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보면 임업기계에 관한 주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업시험이나 연구는 임업기계 연구소갈

은 인상을 줄 정도로 실지 임업에 필요한 시험연구를 해서 임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지 임업기술은 그 고향이 임과대학이나 연구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임업교육이나 시험연구가 임업산업사회와 직결되는 것들을 교육하고 연구시험해서 임업의 국가간 경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업은 장기사업입니다. 장기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장성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홀로서기 못하는 사업인 까닭에 임업의 산업화를 위하여서는 임업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 하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임업정책이 임업정책 담당자가 바뀌어 질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지면 장기사업인 임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산림자원조성정책으로 인공조림 10년계획이 서있어서 이를 이행하려면 수중에 따라서는 7년전부터 종자를 준비하고 1년생 유묘로부터 7년생 성묘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한 양묘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정책담당자가 바뀌어져 조림계획을 바꾸면 조림계획을 늘리면 묘목이 없고, 조림계획을 줄이면 생산된 묘목을 처분할 길이 없어 가까운 재화(財貨)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업에서 잦은 계획변경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임업정책 담당자가 바뀌어 질때마다 이 기본정책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임업기본법을 제정

해서 임업기본정책이 되는 것들은 법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①임업재정 금융확보 및 지원 ②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산림사업협조문제 ③임업의 안전성 확보 ④임업전업노동자 확보 ⑤임업구조조정방안 ⑥산림자원조성에 관한 계획 등은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임업인이 유동선호(流動性選好), 안정성선호(安定性選好), 수익성선호(收益性選好)에 의하여 임업을 하나의 업으로 택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국민전체가 산림환경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앞에 부닥친 임업문제는 임업의 주인인 산주, 다시 말씀드려서 독립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합니다. 임업의 주인인 여러분이 강건너 불보듯해서는 민주정치는 여론의 정치인데 법앞에서 잠을자서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은 산업화로 우선 국제여론이 산림은 임업보다는 환경을 더 비중을 두어 임업이 살아남기가 어려워가고 있어 독일같은 나라는 산주와 산림관련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몇일간 누워가면서 임업도 살고 환경도 살수 있는 대책 다시 말씀드려서 임업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아 냅니다. 그래서 독일같은 나라는 공원이고 보안림이고 법정제한림 같은 것도 다른 산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것이요 크게 두드리면 크게 열릴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독립가협회와 같은 단체로서 American Forester Association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미국 임업가협회입니다. 이곳은 미국 임업하는 사람들의 단체인데 여기에서 민유림에 대한 여론종합과 임업에 대한 조사시험, 임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바 미국임업정책이 거의 이곳에서 여과하여 수립될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미국 임과대학의 교과서를 보면 이론과 통계는 거의 이 임업협회에 의존할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일본을 가보

면 일본의 정치와 행정은 협회 또는 조합 행정이라고 합니다. 협회나 조합이 산업화사회에서 가장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협회나 조합이야기를 들으면 정치 행정이 가장 능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일본 전 협회 조합을 총괄하는 협화(協和)협회가 있고 우리 임업은 임업동우회가 협화협회 회원으로 되어있어 이 임업동우회가 임업 정책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가협회도 우리 임업인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으로 무궁한 발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